

# 5백만 과학기술인들의 총본산으로



우리나라 5백만 과학기술인의 총본산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올해로 창립30주년을 맞아

9월24일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신관)에서 창립기념행사를 갖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지난 1966년 제1회 전국과학기술자대회의 발의로 창립된 과총은 국내외한국과학기술단체를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과학기술의 진흥창달을 도모하고 과학기술자의 권익향상, 회원단체 육성과 국민생활과학화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현재 3백4개 국내학회 및 연구기관과 9개의 해외한국과학기술자협회를 회원단체로 두고 있다. 李壽成 국무총리, 具本英 과학기술처장관, 金德龍 정무1장관, 姜昌熙 국회통신과학기술위원장, 閔寬植 과총 명예회장, 崔亨燮 과총 회장 등 각계인사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행사는 창립30주년 기념식에 이어 기념강연,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시상, 과총30년간의 주요업적과 활동상을 담은 사진전개막, 기념리셉션, 故 金允基 초대회장의 흉상제막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행사의 이모저모를 화보로 꾸며 보았다.



崔亨燮 과총 회장은 이날 과총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뜻깊은 창립 30돌을 맞아 새로운 30년을 내딛는 이 시점에서 우리 과총은 과거의 축적을 토대로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전환점에 서 있다」고 전제하고 「과총은 지난 30년간의 활동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21세기 "세계속의 한국" 건설을 위한 굳건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閔寬植 박사를 비롯한 역대회장과 창립에 크게 기여한 金東一 과총 상임고문 등에 대한 특별공로패 수여가 있었다. 崔亨燮 과총 회장이 閔寬植 과총 명예회장이께 특별공로패를 증정하고 있다.



# 「세계속의 한국」건설 새롭게 다지며...



李壽成국무총리가 과총 창립30주년 기념리셉션장에 들어서기에 앞서 崔亨燮과총회장(중앙)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鄭助英과총상임부회장.

과총 창립30주년 기념리셉션에서 李壽成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지난 30년의 짧지않은 연륜속에서 과총이 질과 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된 감각으로 우리 과학기술의 성장에 기여하여 3백여 과학기술관련 학회와 연구단체를 아우르는 우리나라과학기술계의 총본산이 되어왔다.고 치하하고 「과학기술 진흥과 혁신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인적·물적자원을 한데 모아야할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모든 과학기술관련단체의 모체인 과총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리셉션에서 閔寬植과총명예회장의 과총창립30주년을 축하하는 축배제에 따라 건배를 하기위해 잔을 들고있는 주요인사들. 왼쪽부터 權壽赫서울대명예교수 具本英과기처장관 李壽成국무총리 閔寬植명예회장 崔亨燮회장 姜昌熙국회통신과학기술위원장 金鎭龍정무1장관.



이날 기념식에서 鄭助英 과총상임부회장이 과총 30년간의 연혁을 보고하고 있다.



과총 창립 30주년 기념식에는 4백여명의 과학기술계인사들이 참석, 30년의 한세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는 성년과총을 축하했다.



기념식후 였은 과총창립 30주년 기념강연회에서 威仁英 박사(美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명예석좌교수)가 「해의과학기술자가 본 과총30년과 미래전망」이란 제목으로 강연하고 있다.

# 과총창립30주년기념사진전

1996. 9. 24-10. 4

한국과학기술원국립과학관

과총 30년간의 주요업적과 활동상을 담은 기념사진전 개막테이프를 컷팅하고있는 과학기술계인사들.  
 왼쪽부터 鄭助英상임부회장  
 權壽赫서울대 명예교수  
 姜昌熙국회통신과학기술위원장  
 崔亨燮회장  
 閔竟植 명예회장  
 朴泰源인하대 명예총장  
 金始中경주과학기술원 이사장  
 崔鍾允공인표준협회 명예회장  
 金東一상임고문



과총 창립30주년기념사진전 전시장내부



이날 기념행사의 마지막 순서인 故 金允基과총초대회장의 흉상제막을 마치고 흉상을 바라보고있는 金鏞一 전 한림대의대교수(가족대표) 閔竟植 명예회장 金東一 상임고문 崔亨燮 회장(시계방향)

창의적인 연구활동으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과학기술자에게 수여하는 제6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시상식에서 崔亨燮과총회장이 姜旻三서울대미생물학과교수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고 있다.

